



# 거울을 벗겨내며

호계고 2-8 노정원

유리의 속을 깨어보아야만 아나?

힐끗 흘리기만 하여도 그 속이 투명해 다 비치는 걸.

나도, 유리 안에 전시된 너도 숨길 새 없이 드러나는 걸.

그러나, 이것은 잘 모르는 말이다.

유리가 산산이 조각났을 때

알알이 흩어진 조각들은 마디마다 빛을 내어 전보다도 반짝인다.

속속히 드러나 파편들은 저마다의 나를 잘라 제멋대로 반짝인다.

깨어보기 전엔 누가 유리가 이 많은 빛을 속에 그러쥐고 있던 것을 알았을까.

거울을 들여다보아야만 나를 아나?

재촉할 때에 자꾸만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을

그 속에 박제된 나들 중 여즉 살아 있는 것은 없는 거울을

표면이 아니라 내부에 단단히 진심을 숨긴 거울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.

스스로 깨어나기 전엔 어떻게 내가 그 많은 빛을 속에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.

